

곡선의 아름다움 돋보이는 짜르르하고 요염한 한국춤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춤의 거목 이매방을 회고하다' 특별전 전승마루 1층 기획전시실 개최

한국춤의 매력은 기와지붕이나 한복의 선처럼 곡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뒹굴 짜르르하고 요염하고 이상아릇한 기운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병무,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 특별전을 오는 유산원 전승마루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이번 특별전은 한국춤의 거목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보유자인 우봉 이매방(1927~2015.8)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생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유품을 기증받아 열리는 전시에선 그가 생전에 즐겨 사용했던 손때 묻은 소품을 비롯해 의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 재봉틀과 공연 의상, 각종 도구, 전성기 때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영상 자료 등 118건 275점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춤으로 길을 밝힌 거장이자 한 예술가로 고뇌했을 인간 이매방을

만나볼 수 있도록 4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제1부 이매방, 춤과 인생〉은 다수의 무대에 오르며 남긴 공연기록물을 비롯해 제자들에게 받은 손 편지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그의 예술인생을 되짚어 볼 수 있게끔 엮었다.

〈제2부 마음이 고와야 춤이 폼다〉에선 춤만큼이나 정령이 나 있던 옷 짓는 솜씨로 제자들의 의상을 손수 제작해준 보유자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재현하였다.

〈제3부 나도 춤추고 싶다〉에서는 한평생 춤꾼으로 살아온 이매방의 예술혼이 가득 담긴 춤 연습 공간을 재현해 보유자의 춤에 대한 열정과 예술적 열정을 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이매방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바치는 헌무가 전시공연으로 진행된다.

〈제4부 삶이 춤이고 춤이 삶이다〉에선 사진작가 서현강의 사진에 기록된 이매



이번 특별전은 한국춤의 거목,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보유자인 우봉 이매방(1927~2015.8)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을 마주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전통춤의 명맥을 잇기 위해 일생을 바쳐 온 최고의 예인에게 지나간 길을 묻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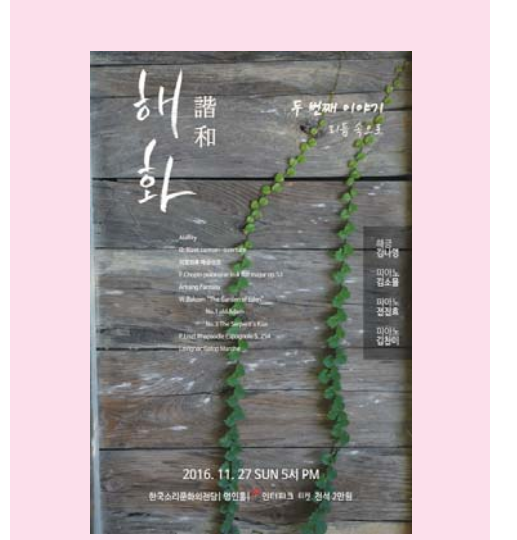
별전이 한평생 무형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영원한 춤꾼 이매방 보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동시에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삶과 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백신에 관한 내용 다른 '면역에 관하여' 출간

"나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지, 또 얼마나 유익할지 짐작도 못했다. 수년에 걸쳐 백신 연구를 지원하고 공부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빌 게이츠는 2015년 이 책을 TED 콘퍼런스 추천 도서와 여름휴가 추천 도서 중 한 권으로 선정했다. 또 페이스북 CEO 마크 Zuckerber그가 함께 읽기를 제안한 '저커버그 북클럽' 네 번째 책으로 올라 화제가 됐다. 미국의 촉망받는 논픽션 작가 올라 비스의 세 번째 책, '면역에 관하여'다. 2014년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올랐다.

출판사는 "백신과 복잡한 면역학에 대해 알고 싶은 누구에게라도 흥미롭고 유용한 책"이라며 특히, "모든 백신 회의론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소개했다. 김명남 옮김, 312쪽 열린책들, 1만5000원. /뉴스스



청년예술가의 '해화' 해금과 피아노로 무대 빛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7일

해금연주가 김나영과 피아니스트 김소유, 김찬미, 전진호가 국악과 클래식의 만남 '해화' 공연을 오는 27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연다. 음악의 곡조가 잘 어울린다는 의미의 '해화'와 같이 이들 청년예술가들은 해금과 피아노로 빛내는 다양한 리듬감과 하모니를 들려주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나영과 김찬미는 듀엣으로 'Ability'를 연주한다. 이는 노은이의 '사자미 해금을 켜겨볼'이라는 음원에 수록된 곡으로 동서양의 공통리듬인 12/8박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풍요적 감성과 서양적 선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곡으로 해금의 독특한 매력을 잘 표현한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북한의 작곡가 최성환이 편곡한 'Arirang Fantasy'의 연주 무대도 갖는다. 이는 한이 서린 아리랑이 아닌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민족적인 희망이 느껴지는 오케스트라 곡으로 이번 무대를 위해 피아노와 해금 편성으로 재구성했다.

해금 신조의 예술성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도 열린다. 김나영씨는 경쾌한 선율이 많고 폭넓은 농현과 섬세한 주법으로 굴곡이 많은 것이 특징인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선보인다. 장구에 김다솜씨가 협연한다. 공연의 마지막 무대는 한 대의 피아노를 네 명이 함께 연주하는 에이핸즈(8hands)의 특별한 장식한다. 티켓은 전석 2만원. /정해은 기자

"전주인문학 365 함께 꽃피워나가요"

시내 65개 기관 네트워크 실무자 간담회 역량강화 교육

전주지역 인문학 관련 네트워크 기관·단체들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전주인문학을 함께 꽃피워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24일 완산도서관에서 45개 기관의 인문학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중 전주인문학365네트워크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인문학365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와 전문 강사의 인문학 특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에서 홍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글머리 작은도서관 외 19개 작은도서관을 네트워크에 추가로 가입시키

기로 하는 등 네트워크 규모를 총 65개의 네트워크 기관·단체로 확장시켜 인문학 홍보 및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반드시 실행하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주제로 한 인문학특강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전주인문학365 활성화를 통해 인문학 네트워크 기관들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공동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나 역량강화 인문학특강 제공 등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베스트셀러 1위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 아버지가 된 '해리포터'의 열풍을 누르고 다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섰다.

24일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한국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 3주 만에 다시 1위 자리로 돌아왔다.

해리포터의 마지막 시리즈로 출간된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1부'에게 2주 연속 1위를 내줬지만 다시 이를 제치면서 설민석의 집재된 저력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도 8위로 전 주보다 여덟 계단 뛰어올랐다.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2부'는 예약 판매 중에 한 계단 오른 2위를 차지했고 1부는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뉴스스



지봉 임산본 대상 '전국정가경창대회' 장원에 김인순 씨

(사)정가보존회(이사장 임산본)가 주최한 제9회 지봉 임산본 대상 전국정가경창대회에서 김인순(59·전북 전주시) 씨가 장원(전라북도지사상 및 상금 300만원)을 차지했다.

장원을 수상한 김인순 씨는 "우리의 옛 것을 지키는 것이 현대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회가 있기까지 심혈을 기울인 임산본 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높이 받들어서, 앞으로 정가인으로서 정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부 ▲장원 김인순(전북 전주시) ▲최우수상 류정임(대구광역시), 김영환

(서울특별시) ▲국창부 ▲최우수상 최남열(전북 익산시) ▲우수상 윤선호(전남 순천시), 김길중(전남 영광군) ▲특부 ▲최우수상 임기준(전북 전주시) ▲우수상 권두상(경남 의령군), 조정숙(경남 의령군) △올부 ▲최우수상 김병선(전북 전주시) ▲우수상 최귀남(경기 파주시), 윤영례(전북 정읍시) △갑부 ▲최우수상 조경애(전북 전주시) ▲우수상 박영화(경북 구미시), ▲오서운(전북 남원시)

지난 28일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대상부를 포함해 국창부, 지름부(특부), 평시조부(올부), 사설시조부(갑부) 등에 걸쳐 총 300여명에 달하는 정가 동호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25일〉

<p>▷쥐띠 46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60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니 투자는 삼가고 금전거래는 멀리한다. 72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84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p>	<p>▷소띠 49년생: 분주다사한 운이나 인덕이 따르니 힘들거만 하지 않는다. 61년생: 서로 웃고 있으나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73년생: 덕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62년생: 운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며, 이통이나 변화를 가져라. 74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좋으나 욕심을 부리면 화가 미친다. 86년생: 익숙한 일에 대해서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p>	<p>▷토끼띠 51년생: 동기지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63년생: 급하게 서두름수록 점점 틀어지니 마음을 비우라. 75년생: 시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 87년생: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니 과유불급.</p>
<p>▷용띠 52년생: 하늘이 돕는다는 믿음을 잃고 하는 말이다. 64년생: 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나 정적 본인은 미흡하다. 76년생: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이 슬픔이 도래하는 운이다. 88년생: 성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p>	<p>▷뱀띠 53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나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다. 65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니 매사에 주의. 77년생: 모든 화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89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p>	<p>▷말띠 54년생: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매달리지 마라. 시간 낭비일 뿐이다. 66년생: 귀인의 도움이 따르니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다른 사람과 구설수, 시비가 따르는 운. 9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p>	<p>▷양띠 55년생: 아까워라가 인심을 잃으니 먼저 내보내라. 67년생: 형제를 버리면 재물이 발생하니 탐욕을 버려라. 79년생: 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면 말이 나는 운이다. 91년생: 원형은 불리하나 그 외의 것에는 좋은 운.</p>
<p>▷원숭이띠 55년생: 귀인이 돕고 하늘이 도우니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이다. 68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수 있는 운이다. 80년생: 동기인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92년생: 지나치게 높게 목표를 잡으면 빈에 도달 전에 포기.</p>	<p>▷닭띠 57년생: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기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굴곡이 따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하다. 81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게 된다. 93년생: 한 번에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흥하다.</p>	<p>▷개띠 48년생: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작은 것은 이루어진다. 60년생: 자신을 낮추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운. 70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성을 주의. 82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야 하는 운이다. 건강에도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처음엔 좋지 않으나 나중에는 이루어지는 운. 59년생: 지나친 의욕은 실패를 부른다. 정도를 지켜야 하는 때. 71년생: 질병에 취약한 운이니 건강에 유의하고 성상에 주의하라. 83년생: 일에 막힘이 생기니 욕심을 금음. 서두르지 말라.</p>